



## 신라 사찰의 진입방식 변화와 불국사 靑雲橋·白雲橋의 의미

Changes to Access Ways to Silla's Buddhist Temples and the Meanings of Cheongwoongyo and Baekwoongyo at Bulguk Buddhist Temple

---

저자 오세덕

(Authors) Oh Se-deok

출처 [신라사학보](#) , (49), 2020.8, 333-358 (26 pages)

(Source) [SILLASAHAKPO](#) , (49), 2020.8, 333-358 (26 pages)

발행처 [신라사학회](#)

(Publisher)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807278>

APA Style 오세덕 (2020). 신라 사찰의 진입방식 변화와 불국사 靑雲橋·白雲橋의 의미. 신라사학보, (49), 333-358.

이용정보 삼성현역사문화관

(Accessed) 183.106.106.\*\*\*  
2021/06/12 11:45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신라 사찰의 진입방식 변화와 불국사 靑雲橋·白雲橋의 의미

오 세 덕\*

I. 머리말	IV. 불국사 청운교·백운교의 명칭
II. 신라 사찰의 진입방식 변화	V. 맺음말
III. 불국사 청운교·백운교의 조성기법과 의장	

## 【국문초록】

신라 사찰의 진입방식 변화와 불국사 청운교·백운교의 의미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먼저 신라 사찰의 입지를 평지, 구릉, 산지로 구분하여 각 입지에 따른 진입방식을 검토하였다. 신라 사찰이 평지에서 구릉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진입로는 다리와 계단형식 두 가지이다. 다리형식의 진입로는 기존에 불국사 청운교·백운교가 최초의 사례로 알려져 있으나 이 글을 통해서 사천왕사가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다리형식의 진입로는 사천왕사 이후 토함산 지역에 창건되는 송복사와 원원사 등으로 이어진다. 계단형식 진입로는 감은사가 최초의 사례이며, 이후 구릉과 산지에 입지하는 많은 사찰로 계승된다.

불국사 청운교·백운교는 독창적인 건축기법과 의장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독창적인 건축기법은 신라의 일반적인 사찰 기단이 지대석+면석+갑석의 결합을 통해 구성하고 있는 반면 불국사 기단은 몸체의 3중 갑석 구조로 인해 면석의 이탈방지 효과가 탁월하

\*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부교수

주요논저 : 2020, 「新羅 石槽 展開와 佛國寺 石槽(石花)의 意味」 『문화사학』 53 : 2019, 「금산사의 시대별 가람배치 변화와 조선후기 후원자」 『불교학보』 89 : 2019, 「양주 회암사지 유구 분석을 통해 본 시기성과 조선시대 사찰에 미친 영향」 『불교미술사학』 28 : 2018, 「조선후기 雲門寺 전각의 건립시기와 伽藍配置 변화 검토」 『강좌미술사』 50.

다. 특히, 모서리 부분의 '亞'자형 귀틀 감석 구조는 신라의 여타의 건축물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독창적인 구조기법으로 주목된다. 불국사 청운교·백운교는 의장까지도 완벽하게 고려하여 조성하고 있다. 청운교와 백운교의 규모 차이, 정면 기둥의 배열에서 1단의 기둥 높이에 비해 2, 3단의 기둥을 낮게 조성하여 균형을 맞추고 있다. 청운교 기둥의 주경보다 백운교 기둥의 주경을 더 적게 조성하는 등 시각적 안정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처마끝의 표현, 기단 동·서면의 시선차단벽 부재의 차용, 서까래석과 눈썹지붕 석재 등은 목조건물의 건축적 요소를 완벽하게 도해한 것이다.

신라인이 만든 불국사는 당시 신라인이 꿈꾸던 불국토를 가장 잘 표현한 사찰이며, 진입로인 청운교·백운교까지도 불교적 교리를 바탕으로 탄생시킨 조영물이다. 다만 그 명칭에 대해서는 통일신라시대 창건 당시 정확한 이름은 알 수 없고, 고려시대 일연이 찬한 『삼국유사』에는 雲梯, 梯磴으로 불리고 조선시대 불국사 고금창기 이후 본격적으로 청운교·백운교라는 명칭이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 불국사, 청운교·백운교, 신라 사찰, 진입로, 평지사찰, 구름사찰, 산지사찰

## I. 머리말

신라 천년의 수도였던 경주에는 신라인이 남겨 놓은 많은 사찰이 있다. 신라의 사찰은 입지에 따라서 크게 평지사찰과 구름사찰, 산지사찰로 구분할 수 있다.<sup>1)</sup> 사찰의 입지 선정은 도시의 확장, 삼국통일 전쟁, 교통로의 정비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여 결정하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평지에서 산지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사찰의 입지 변화는 단순한 위치 이동이 아닌 축대의 조영, 쌍탑의 등장, 새로운 전각의 건립, 진입로의 등장 등과 함께한다. 신라 사찰의 입지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변화 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점은 새로운 진입로의 출현이다. 황룡사 같은 평지사찰의 경우 왕경의 도로망에 맞춰 가람을 조성하여 별도의 진입로 없이 중문을 지나 중심영역으로 들어설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불국사와 같은 산지사찰의 경우 도로망과 인접하지 않고 떨어진 곳에 입지하고

1) 鄭寅國, 2006, 『韓國建築樣式論』, 一志社, 212쪽.

있어 긴 진입로를 통해 사찰로 들어서게 된다. 신라의 산지사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찰의 중심영역도 중요하지만, 사찰로 들어서기 위한 진입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신라 사찰의 진입로에 대한 연구 성과는 없으며 크게 주목의 대상도 아니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산지사찰에 들어서기 위해서 一柱門, 天王門, 金剛門 등의 다양한 문과 함께 긴 진입로를 지나 중심영역에 다다른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고대 사찰 진입로의 시작점에 대한 선행적인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sup>2)</sup> 이 글에서는 신라 평지사찰이 구릉사찰로 입지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출현하는 새로운 진입로와 그 방식을 검토해 보고자한다. 신라 사찰에서 가장 이상적인 진입로를 구현한 불국사 석교(청운교·백운교)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겠다.<sup>3)</sup> 아울러 신라인의 불국도관과 문헌자료 검토를 통해 오랜 시간 청운교와 백운교라는 이름으로 불려온 불국사 석교의 명칭을 살펴보고, 불국사 청운교·백운교의 건축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을 함께 하고자 한다.

## II. 신라 사찰의 진입방식 변화

신라는 삼국 중 가장 늦은 527년 異次頓의 순교로 불교를 공인하고 이듬해인 528년 최초의 사찰 흥륜사를 창건한다.<sup>4)</sup> 이후 靈妙寺, 三郎寺, 芬黃寺, 皇龍寺 등을 차례로 창건하고, 삼국통일을 기점으로 狼山과 普門洞 일원을 걸쳐 王京의 외곽으로 사찰을 확장한다.<sup>5)</sup> 신라의 사찰은 건립되는 지형에 따라서 크게 평지사찰과 구릉사찰, 산지사찰로 구분한다. 평지사찰은 평지의 넓은 지형에 건립되는 형식으로 왕경 중심부에 있는 황룡사와 분황사가 대표적이다. 구릉사찰은 산지로 진입하는 초입에 건립되는 형식으로 왕경보다는 그 외곽에 건립되는 경우가 많고 사천왕사와 감은사, 망덕사 등이 있다. 산지사찰은 구릉사찰보다 산속에 깊게 들어가 조성하는 형식으로 부석사를 중심으로 한 華嚴十剎과 동화사, 해인사 등이다.

2) 사찰의 중심 영역은 중문(남문), 탑, 금당, 강당회랑까지이며, 중문 앞쪽의 영역은 진입로 영역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3) 엄중섭, 2008, 『佛國寺 靑雲橋·白雲橋의 순서 고찰』 『건축역사연구』 제17권 2호, 한국건축역사학회, 83~10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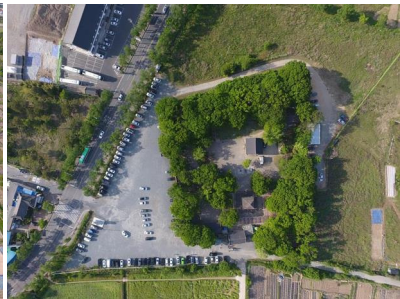
4) 『三國遺事』 卷3, 『原宗興法 厭騰滅身 眞興大王即位五年甲子 造大興輪寺.』

5) 오세덕, 2013, 『慶州 普門洞 寺址에 관한 고찰』 『古文化』 81, 92쪽.

신라 사찰은 입지하는 지형에 따라서 진입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평지사찰인 황룡사지는 왕경의 중심부에 건립되고 있다. 황룡사의 창건은 『三國遺事』에 제 24대 진흥왕 즉위 14년 궁을 지으려 하는데 그곳에 황룡이 나타나서 이에 고쳐서 절을 짓고 황룡사라 하였고, 569년에 담을 두르고 17년에 완성한다.<sup>6)</sup> 574년에는 장육존상을 주성하여 한 번에 이룬다.<sup>7)</sup> 선덕여왕 때 구층 목탑을 조영한다. 이후 동서 금당이 만들어지고 금당 앞의 종루와 경루가 경덕왕 때 마무리되어 가람을 완성한다.<sup>8)</sup> 황룡사지는 문헌기록뿐만 아니라 1973년부터 진행된 발굴조사를 통해서도 그 전모가 드러난다. 가람은 남-북 자오선을 중심으로 남쪽부터 중문을 지나 동서로 경루와 종루가 있고, 그 뒤로 구층 목탑이 있다. 탑 뒤로 중금당을 중앙에 두고 동·서 금당이 좌·우로 배치되는 3금당 1탑 형식이다. 금당 뒤쪽으로 강당을 배치하고 사방으로 회랑을 둘러 사역을 완성하고 있다.(도판 1) 평지사찰인 황룡사지는 발굴조사를 통해서 중문 밖으로 인접하여 도로 유구가 확인되고 있을 뿐 사찰로 진입하기 위한 별도의 진입로가 없다.



〈도판 1〉 황룡사지 전경



〈도판 2〉 분황사 전경

분황사는 황룡사와 동일한 평지사찰로 창건은 '선덕왕 3년(634) 정월에 연호를 仁平으로 고치고 완성한다.'<sup>9)</sup> 창건 이후 명승 자장과 원효가 주석한다. 분황

6) 『三國遺事』 권3, 탑상, “皇龍寺丈六 新羅第二十四眞興王即位十四年癸酉二月 將築紫宮於龍宮南 有黃龍現其地乃改置爲佛寺号黃龍寺 至己丑年周圍牆宇 至十七年方畢.”

7) 『三國遺事』 권3, 탑상, “龍寺丈六 輸其金鐵於京師 以大建六年甲午三月 寺中記云癸巳十月十七日 鑄成丈六尊像一鼓而就.”

8) 張慶浩, 1996, 『韓國의 傳統建築』, 文藝出版社, 131쪽.

사의 가람은 문헌기록에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1990~2003년까지 총 7차례의 순차적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발굴조사를 통해서 그 전모가 확인된다. 분황사는 남-북 자오선을 중심 축선으로 남쪽부터 남문이 있고 그 뒤 중앙에 모전석탑이 있다.(도판 2) 이 탑 주변으로 금당 3동이 있어 금당이 탑을 ‘品’자형으로 감싸고 있는 형식이다. 분황사 역시 발굴조사를 통해서 황룡사지처럼 남문으로 진입하는 형식이 드러났고, 별도의 진입로 시설은 갖추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한 두 사찰처럼 신라의 평지사찰은 모두 중문을 통해서 가람으로 진입하고 있어, 별도의 진입로가 확인되지 않는다. 신라 평지사찰의 가람배치와 진입로가 삼국통일을 기점으로 왕경의 외곽 구릉지로 사찰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신라 최초의 구릉사찰은 四天王寺이다.(도판 3) 사천왕사는 신라 30대 문무왕 때 “명랑이 아뢰기를, ‘狼山 남쪽 神遊林이 있으니, 그곳에 사천왕사를 세우고 도량을 개설함이 좋겠습니다.’라는 건의로 건립되었다.”<sup>10)</sup> 사천왕사지의 가람배치는 평지사찰과 동일하게 남-북 자오선을 중심 축선으로 기존의 1탑 형식에서 탑이 2개로 늘어나고 금당 뒤쪽으로 단석지가 생기는 변화가 발생한다. 신라의 구릉사찰은 감은사로 이어진다. 감은사는 삼국통일 전쟁 중에 지어진 사찰로서 문무왕이 시작하여 완성은 신문왕이 이룬다. 감은사지는 최근 발굴 조사와 남아 있는 유구를 통해서 가람의 전모가 확인되었다. 가람은 남-북 자오선을 중심 축선으로 남쪽의 중문을 지나 양쪽으로 2탑이 있고, 그 뒤로 금당과 강당이 배치된다.(도판 4) 감은사 전체를 회랑으로 둘러 마감하고 있다.

신라의 평지사찰 가람배치는 남-북 자오선을 중심 축선으로 중문-단탑-금당-강당이 1축으로 배치되는 형식이다. 삼국통일 이후 입지가 구릉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구릉사찰은 중문-쌍탑-금당-단석지-강당 등의 전각이 1축으로 배치되는 형식은 평지사찰과 동일하지만 전각과 탑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평지사찰에 없는 새로운 진입로가 출현한다. 신라인은 사찰이 평지에서 구릉으로 이동하면서 평지보다 상대적으로 긴 진입로가 필요해졌고, 이 진입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9) 『三國史記』 권5, 신라본기5, “善德王 眞德王 太宗王條 善德王立 ... 三年春正月改仁平芬黃寺成.”

10) 『三國遺事』 권2, 기이2, “文武王法敏 朗奏曰 狼山之南有神遊林, 創四天校勘 王寺於其地.”



〈도판 3〉 사천왕사지 전경



〈도판 4〉 감은사지 전경

신라의 구릉사찰은 평지사찰에 없는 새로운 다리와 계단형식의 진입로를 창안하게 된다. 최초의 다리형식의 진입로가 구현된 사찰은 사천왕사이다. 사천왕사지는 대부분의 유구가 발굴 이전 노출된 상태로 평지사찰과 동일한 가람 진입 방식으로 추정하였으나 2006년부터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을 진행하여 새로운 형식의 진입로가 출현하였다.<sup>11)</sup> 사천왕사지는 남-북 자오선을 중심 축선으로 쌍탑 남쪽에 있는 중문부터 사찰의 중심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평지 사찰과의 동일한 진입방식으로 추정하였으나, 발굴조사에 중문 앞쪽에 있는 쌍귀부 중간에서 새로운 다리 유구가 확인되었다.(도판 5) 이 다리는 일반적인 평지사찰의 중문 위치보다 더 앞쪽에 있어 기존 중문을 지나 진입하는 평지사찰의 진입 방식과 다른 진입방식이다. 또한 이 다리 아래로 별도의 배수로를 조성하여 물이 흐르게 하였으며, 그 위쪽으로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반원형의 아치교를 조성하고 있다. 불국사 청운교·백운교처럼 물이 지나는 초기적인 아치형식의 다리가 선행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신라 사찰 건축에서 불국사 청운교·백운교는 당시 신라인의 이상적인 불국토를 표현한 최초의 진입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사찰의 입지가 평지에서 구릉으로 이동하는 첫 사례인 사천왕사의 진입로부터 불국사 석교의 초기적인 모습의 형태가 등장한 것이다.

신라 최초의 다리형식 진입로는 사천왕사지 인근에 있는 망덕사지에도 있다. 망덕사는 “長壽 원년 임진 孝昭王이 즉위하여 望德寺를 처음 세워 당 황실의 덕을 받게 하고자 건립되었다.”<sup>12)</sup> 망덕사지는 시굴조사와 남아 있는 유구를 통

11)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四天王寺 I 金堂址 발굴조사보고서』, 9쪽.

12) 『三國遺事』卷5, 감동7, “眞身受供 長壽元年壬辰孝昭即位 始創望德寺將以奉福唐室 後

해 사천왕사지와 동일하게 남-북 자오선을 중심 축선으로 남쪽부터 중문-쌍탑-금당-강당이 1축으로 배치되는 형식임이 확인되었다.(도판 6) 망덕사지의 진입로와 중심불전 영역은 3m 이상의 높이 차이가 있어, 두 영역을 연결하기 위한 진입로 시설이 필수이다. 현재 망덕사지의 진입로로 추정하는 남쪽 영역에 신라 사찰의 계단에서 사용하는 법수석과 몇 장의 석재가 확인되고 있어 사천왕사지 처럼 초기적인 다리형식의 진입로가 있던 사찰로 추정할 수 있다.



〈도판 5〉 사천왕사지 다리 유구



〈도판 6〉 망덕사지 진입로의  
법수석과 면석

신라 사찰이 평지사찰에서 구릉사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진입로는 다리형식과 다른 계단형식도 함께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계단형식 진입로는 불국사의 대웅전영역에서 관음전영역을 연결하는 낙가교와 같은 모습이다. 계단은 서로 다른 영역의 높이 차이를 극복하고 연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두 영역의 높이 차이가 심할 경우 급경사를 이룰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계단형식의 진입 시설은 별도의 넓은 공간이나 복잡한 시설물 없이 서로 다른 높이의 영역을 연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구조임은 틀림없다.

신라 구릉사찰 계단형식 진입로는 앞쪽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감은사가 가장 이른 사례이다. 감은사지의 가람 주축은 남-북 자오선을 중심으로 남쪽에 남문이 있고 그 앞쪽으로 절벽에 가까운 경사지가 있다. 감은사지의 가람 동선을 고

景德王十四年望德寺塔戰動 是年有安史之亂 羅人云 ‘爲唐室立茲寺, 宜其應也.’

려해 보면 주 출입로는 남문에서 아래의 나루터까지이고, 이 나루터에서 중문으로 이동하기 위한 진입로가 마련되었다.<sup>13)</sup> 감은사지의 진입로가 사천왕사지와 같은 다리형식이었다면, 나루터와 남문의 높이가 15m 이상임으로 불국사의 청운교·백운교에 버금가는 홍예교는 아니더라도 복잡한 시설물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감은사의 중문 앞쪽으로 불국사의 석교처럼 복잡한 다리로 추정할 수 있는 유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감은사 진입로가 나루터에서 중문까지 오르는 불국사의 낙가교 같은 단순한 계단 구조이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계단형식의 진입로는 구룡사찰보다는 부석사와 같은 산지사찰에서 먼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오늘날 부석사의 모습을 통해서 의상이 창건한 초창기의 모습을 짐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실한 사례는 감은사의 계단 진입로가 처음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입지에 따른 신라 사찰 진입방식 변화상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사찰의 건립이 평지에서 구룡이나 산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찰로 진입하기 위한 긴 진입로가 새롭게 탄생한다. 때로는 이 진입로는 진입로영역과 중심영역의 높이 차이를 극복하는 시설물이기도 하다. 신라 사찰의 입지 변화에서 새롭게 모색되는 진입로 크게 다리와 계단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리형식의 진입로 최초의 사례는 기존에 알려진 불국사 청운교·백운교가 아닌 사천왕사가 시작점이다. 다리형식의 진입로는 향후 토함산 지역에 조성되는 崇福寺와 遠願寺로 이어진다. 계단형식 진입로는 감은사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이후 구룡과 산지에 입지하는 많은 사찰의 진입로로 계승된다. 신라 사찰 진입로의 두 형식은 계단과 다리형식을 절묘하게 조합한 구조물인 불국사의 청운교·백운교로 우리나라 사찰 최고의 진입로를 구현하고 있다.

### III. 불국사 청운교·백운교의 조성기법과 의장

신라 사찰 진입방식에서 가장 이상적인 조영물인 불국사 청운교·백운교는 사찰의 중심 출입문으로 이 다리를 밟고 紫霞門을 지나 釋迦塔과 多寶塔이 있는 대웅전영역으로 들어설 수 있다. 청운교·백운교는 위에 놓인 백운교가 14단 하

13) 출입시설은 구룡 말단부에 위치하며 대종천에 석축을 쌓고 올라오도록 계단을 만들었다. 문화재청·國立文化財研究所, 2010, 『동아시아 고대사지 비교연구』, 112쪽.

단의 청운교가 18단으로 총 34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2층 구조이다.(도판 7~10)

백운교와 청운교는 계단 숫자 차이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조성기법과 의장에서 차이가 있지만 홍예교를 기본으로 하는 다리와 계단이 결합한 구조물 점은 동일하다. 청운교는 지면에서 높이 3.6m 넓이 5.14m의 단층 기단을 조성하고 이 기단과 지표면을 홍예교와 앞쪽의 계단을 결합하여 연결하고 있다. 청운교의 기단 남면은 각기둥과 감석(돌뿔), 면석을 결합해서 14칸 3단의 벽면을 구성하고, 동·서면은 각기둥과 면석, 감석, 자연석을 결합해서 5칸 3단으로 각각 구성하고 있다. 청운교 남면의 14칸 중 중앙 6칸은 앞쪽으로 1단까지 벽면을 설치하고 그 상부로 지표면과 연결하는 홍예와 계단을 결합하고, 좌·우면은 각각 4칸씩 3단까지 벽면을 구성하고 있다. 청운교 기단 남면의 좌측 1단 벽은 1~5열까지 높이 150cm의 사각기둥 5기를 50cm 정도의 간격으로 배열하고 그 상부에 감석(돌뿔)을 올리고 있다. 2단은 1단의 감석 상부로 다시 50cm 높이의 사각기둥을 놓고, 감석을 한단 더 올리고 있다. 3단은 2단의 감석 상부로 2단과 동일하게 50cm 높이의 사각기둥을 놓고 그 상부에 감석과 감석을 두 단 더 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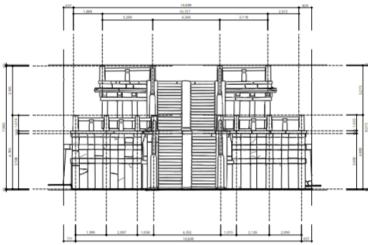
청운교의 기단 면은 1단에서 3단까지 모두 기둥(1열)-면석(1매)-기둥(2열)-면석(1매)-기둥(3열)-면석(1매)-기둥(4열)-면석(1매)-기둥(5열) 순으로 배열하고 이 사이에 감석을 끼우는 구조가 반복된다.(도판 9) 이러한 기둥열의 구성은 1열에서 5열까지 모두 같고 기둥과 기둥 사이는 사각의 면석과 창방석을 끼워 3단 높이까지 쌓고 있다. 기단 좌측 벽면은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면석이 최하단에 놓이고 그 위로 면석의 사방 모서리를 기둥과 창방석이 누르고 있다. 이 기둥과 창방석을 감석이 한 번 더 누르고 있어 삼중으로 뒷면의 면석을 누르는 구조가 된다. 청운교의 기단을 삼중 구조로 누르고 있어 일반적인 가구식 기단에서 우주와 탕주를 이용하여 면석을 이중으로 누르는 구조보다 뒤면에 있는 면석을 더 강하게 지킬 수 있다. 이 힘으로 인해 1열 기둥과 2열 기둥의 1단과 2단의 면석이 3조각으로 깨진 상태에서도 외부로 빠지지 않고 현재까지 견딜 수 있었다. 기단 남면의 우측 벽면은 좌측 벽면과 동일하게 1단에 5기의 사각기둥을 50cm 간격으로 배열하고 이 사이에 면석, 감석, 창방석을 3단으로 중첩하여 쌓는 형식으로 4칸 3단 12면의 벽을 완성하고 있다. 남면 중앙 6칸은 하단에 좌·우측 벽의 하단과 동일하게 5기의 사각기둥을 50cm 간격으로 배열하고 그사이에 면석을 끼우고 상부에 감석이 아닌 긴 창방석을 올리고 있어 차이가 있다.



〈도판 7〉 불국사 청운교·백운교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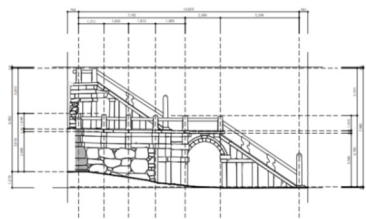


〈도판 8〉 불국사 청운교·백운교 측면



청운교 및 백운교 정면도  
2020. 문화재청

〈도판 9〉 불국사 청운교·백운교 정면 도면  
(『불국사 청운교·백운교 정밀실측보고서』  
2020. 문화재청)



청운교 및 백운교 좌측면도  
2020. 문화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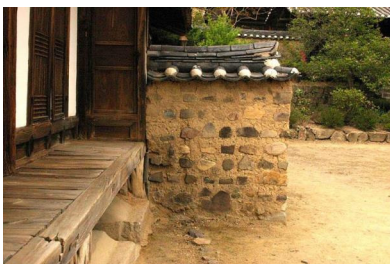
〈도판 10〉 불국사 청운교·백운교  
측면 도면  
(『불국사 청운교·백운교 정밀실측보고서』  
2020. 문화재청)

청운교 기단의 동·서면은 남면과 먼 구성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전열 2열 기둥까지는 1단의 사각기둥과 2, 3단의 짧은 사각기둥 사이에 감석을 끼워 3단까지 올리는 구성으로 남면과 동일한 방식이다. 3열 기둥은 2단 높이까지 1, 2열에서 보이는 두꺼운 사각기둥이 아닌 조금 더 세장하고 옆으로 튀어나온 기둥을 사용하고, 3단 상부에 감석을 올려 마감하고 있다. 4~6열 기둥은 1, 2단 기둥이 모두 사라지고 지름 1m 이상의 대형 자연석을 3단으로 쌓고 그 위쪽에 감석과 면석을 올리고 있어 앞의 기둥열 구성과 차이가 있다. 청운교 측면의 3단 구성은 1~6열 기둥 모두 50cm 정도의 짧은 사각기둥 상부에 감석과 면석을 올리는 남면과 동일한 구조로 짜인다. 이러한 동·서면의 기둥열에 따른 판석과 자연석을 혼합하여 구성하는 이유는 청운교 기단의 후면이 자연석과 가공석이 결합한 대석단으로 이어지고 있어 두 기단의 자연스러운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의장적

측면이 강하다. 또한, 3열 기둥이 세장하여 1, 2열의 기둥과 다르게 옆으로 더 돌출된 이유는 4~6열의 자연석을 정면 쪽에서 바라봤을 때 뒤쪽으로 시선이 차단되어 감춰주는 역할을 한다. 마치 전통 한옥 건물에 사랑채와 안채 중간에 넓지 않은 좁은 차단벽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직접적인 시선이 안채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시선 차단벽과 같은 원리가 적용된 것이다.(도판 11, 12)



〈도판 11〉 청운교 기단 남쪽 3열 기둥



〈도판 12〉 한옥의 시선차단벽



〈도판 13〉 청운교 기단 모서리 감석



〈도판 14〉 청운교 기단 모서리 감석

청운교의 기단에서 구조적인 완성도가 가장 높은 곳은 남면과 동·서면이 결합하는 모서리 부분이다. 이 모서리 부분은 남면의 수평·수직 힘과 동·서면의 수평·수직 힘이 90°로 결합하는 곳으로 가장 많은 하중이 발생한다. 이러한 과중한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기 위해서 모서리 부분은 다른 면에서 보이는 감석과 다른 모양의 돌을 사용한다. 청운교 기단에서 사용된 일반적인 감석은 창방석과 떨어져 결합하고 있지만 모서리 부분의 감석은 창방석과 결합되어 1조를 이루고 있다.<sup>14)</sup> 더욱이 양방향의 무게를 고려하여 1·2단의 감석은 동·서면의 창방석과 결합된 구조이고, 2·3단의 감석은 남면의 창방석과 결합한 단일부재로

조성하고 있어 양 방향의 무게를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있다. 또한 감석 머리를 ‘亞’ 자형으로 모각하고 있어 다른 감석과 의장적 차이가 없다.(도판 13, 14) 청운교 기단의 상부는 石柱와 童子柱를 세운 난간대를 설치하고 있다. 기단 남면 상부의 좌·우는 3기의 석주(엄지기둥)와 동자주를 일정한 간격으로 놓고 이 사이를 돌난대를 가로질러 마감하는 전형적인 난간 구조이다. 기단 상부의 동·서 측면은 석주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고 이 사이에 동자주를 생략하고 있어 남면의 난간구조와 차이가 있다. 청운교의 난간은 신라의 건축물에서 자주 등장하는 요소로 주로 왕릉 주변 난간석이나 법주사 석연지 난간석, 백암장 삼층석탑 난간 등이 있다.

백운교는 청운교의 상층으로 청운교에서 물림하여 조성한 하교, 그 위로 지하문을 받고 있다.(도판 15, 16)



〈도판 15〉 백운교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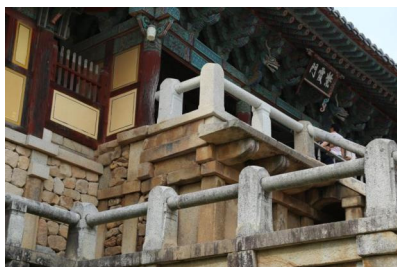


〈도판 16〉 백운교 측면

백운교는 청운교에 비해 높이 3.15m, 넓이 5.09m의 크기로 상대적으로 작게 만들어 상·하층의 안정감을 고려하고 있다. 청운교는 백운교와 동일하게 기단의 남면과 동·서 측면의 면 구성에서 차이가 있다. 남면은 전체를 10칸 1단 높이로 구성하여 중앙 4칸은 홍예교와 계단을 결합하여 설치하고, 좌·우 측면은 각각 3칸씩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있다. 백운교 기단 남면은 청운교보다 직경이 절반인 사각기둥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고 그 상부에 감석이 아닌 창방석을 올리고 있다. 기둥과 기둥 사이는 사각의 면석을 끼워 연결하여 기둥(1열)-면석(1매)-기

14) 송경하, 2015, 「불국사에 석축에 나타나는 고대 석축의 구축법과 의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17쪽.

등(2열)-면석(1매)-기둥(3열)-면석(1매)-기둥(4열) 순으로 배열하고 창방석 상부로 다시 정면으로 돌출된 서까래석을 한단 더 놓고 있다. 이 서까래석 상부로 다시 눈썹지붕 석재를 올리고, 눈썹지붕 석재 상부로 면석과 갑석을 올려 마치 목조 건물의 지붕 처마선을 구성하고 있다.(도판 17) 백운교의 기단 남면 면석은 양쪽의 기둥과 창방석이 누르고 있는 이중 구조로 청운교의 삼중 구조보다 완결성이 약하다. 이는 하단보다 상단이 상대적으로 적은 하중을 받기 때문에 생긴 구조적인 차이이다. 기단 남면의 중앙 4칸은 1층 기단에서 오르는 홍예다리와 계단석을 놓고 있어서 좌·우 측면의 상부 구성과는 다르게 1단의 기둥만 배열하고 있다. 백운교 기단의 좌·우 측면은 남면과 동일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기둥을 배열하여 1단 높이까지 올렸으며 1~4열까지 기둥을 배열하고 있다. 1열 기둥과 2열 기둥 사이는 남면과 동일한 면석을 끼워 연결하고 있지만 2~4열 기둥 사이는 자연석을 끼워 연결하고 있어 전열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구성방식은 하단의 동·서면과 동일하며, 하단보다 상단의 자연석 규모는 작다. 백운교 역시 기단 상부로 청운교 기단 상부와 동일하게 석주와 동자주, 돌난대를 가로지르는 난간을 두르고 있다. 백운교 남면은 석주를 좌·우 양쪽에 놓고 중간에 동자주를 놓아 돌난대를 받는 형식이고 동·서 측면은 석주만 놓고 중간에 동자주를 생략하여 돌난대를 받는 형식으로 청운교 상부의 난간 구성방식과 동일하다.(도판 18)



〈도판 17〉 백운교 눈썹지붕 석재



〈도판 18〉 백운교 난간

청운교는 높이가 다른 2개의 영역을 연결하기 위한 계단과 이 계단을 연결하는 중간 통로이자 상·하단의 상부에 해당하는 홍예교를 결합한 구조이다. 청운교의 계단은 일반적인 건물 계단형식과 동일하게 지대석, 면석, 소맷돌 디딤돌(참), 범수석 등으로 구성된 계단부와 虹霓<sup>15)</sup> 구조로 만들어진 다리로 나뉜다.

청운교의 계단부는 정면의 계단, 측면의 면석부, 후면의 홍예부로 세분된다. 먼저 정면의 계단은 3장의 긴 판석을 중앙 답도와 좌·우 측면으로 나란히 배열하고 이 사이에 18개의 디딤돌(참)을 놓아 양쪽으로 나누어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는 양분형이다. 중앙 답도와 좌·우 측면의 판석은 불국사에서 조성된 가장 긴 사이즈의 부재이다. 판석의 면을 얇게 치석하여 지표면에서 청운교 상단부까지 경사도에 따라서 한 번에 이어지고 있다. 좌우 판석은 중앙에 돌대를 두어 장석을 가미했지만 중앙 답도 판석은 아무런 장석이 없다. 계단부의 구성은 3장의 판석을 이용해서 양쪽 계단을 양분한 형식으로 영암사지 금당의 계단이나 조선시대 조성된 법주사 대웅전, 통도사 대웅전 정도의 대규모 사찰 주불전의 중심 계단으로 사용하는 형식이다. 사찰의 중심영역이 아니고 불국사 같은 진입로에 양방향으로 된 계단을 설치한 사찰은 고려 후기 왕실의 주도로 건립한 양주 회암사 정도지만, 회암사 진·출입로의 양분형 계단은 불국사의 청운교·백운교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이처럼 불국사 진입로의 양분형 계단 구성은 일반적인 사찰에서 찾을 수 없는 파격적인 형식이며 고급 기술의 결합체이다.

청운교 상부 역시 기단의 상부 난간과 연결되는 난간을 두르고 있는데 맨 앞쪽의 법수석에서 중간 홍예교 상부의 기둥을 지나 상단의 기단 석주까지 연결하고 있다. 법수석과 중간 석주 사이에 동자주를 놓아 잇고 있으며 계단 상부 역시 하단의 상부 난간 석주까지 돌난대를 끼워 연결하고 있는 방식이다. 계단 맨 앞쪽 하부에는 3장의 방형 석재를 놓아 판석이 하부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정 핀 역할을 한다. 좌·우 면석 상부는 법수석을 세우고 중앙 부재는 별도의 석재를 올리지 않고 있다.

청운교 계단 측면의 면석부는 일반적인 계단의 면석과 동일하게 판석과 지대석 면석을 결합하는 구조이다. 계단의 지대석은 지표에 매몰된 상태로 정확하게 노출되지 않지만 조성되었다. 이 지대석 상부의 면석은 하단 남면의 기단 면석과 동일하게 5기의 기둥을 배열하고 그 사이에 판석을 끼워 결합하고 있다. 즉 기둥(1열)-면석(1매)-기둥(2열)-면석(1매)-기둥(3열)-면석(1매)-기둥(4열)-면석(1매)-기둥(5열) 순으로 결합하고, 기둥과 면석은 계단의 경사도에 따라 높이가 다르고 사선 방향으로 절단되어 있다. 3열과 4열 기둥의 경우 면석이 높게 조성되

15) 虹霓란 건축물 개구부의 상부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쉼기형 석재 또는 벽돌로 곡선지게 조적한 구조체이다(장기인, 1992, 『韓國建築大系』 石造, 普成閣, 141쪽).

어 중간에 창방석을 두고 상부로 짧은 기둥을 더 두는 2단 구성이다. 이처럼 계단의 면석부분을 기둥과 면석을 이용해서 결합하는 구조는 다른 사찰이나 궁궐의 계단에서 보이지 않는 불국사 청운교·백운교에서 나타나는 독창적이 특징이다.

청운교 중간을 연결하는 홍예부는 후면의 육축과 앞쪽의 선단석 그 상부에 홍예부로 나누어진다. 선단석은 1m 50cm 높이며, 청운교 기단과 동일하게 쌓아 올리고 그 앞쪽 계단의 후면이며, 두 영역을 3기의 켜기형 뼈대로 연결하고 있다. 켜기형 뼈대는 일반적인 석빙고에서 보이는 뼈대와 동일하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석재를 가공하여 13장을 반원형 모양으로 정연하게 쌓고 그 상부에 비교적 넓은 판석을 4줄 올려 마감하고 있다. 4줄의 판석은 외부로 노출되는 외부 판석은 3장을 이용하여 결합하는 반면 내부의 노출되지 않는 판석은 9장으로 조성하고 있다. 특히 외부로 노출된 3장의 판석은 중앙의 작은 판석을 두고 긴 판석 2장이 앞·뒤로 연결하는 형식이다. 앞·뒤 2장의 판석은 반원형에 가까울 정도의 곡면이 크다. 중앙에 있는 작은 켜기형 판석은 아래에 있는 뼈대 켜기석과는 반대 방향의 역사다리꼴 모양으로 치석 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 홍예교 상부는 3장의 장대석을 이용해서 누르고 있는데 장대석의 위치는 계단이 연결되는 앞부분과 중간 켜기석의 중간 부분, 후면 기단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3장의 장대석 상부로 다시 5장의 수평 면석을 올려 상면부를 완성하고 있다. 상면부 역시 앞쪽의 계단부와 동일하게 3장의 판석을 놓고 중앙으로 장대석을 밟고 출입할 수 있는 양방향 구성이다. 중앙의 판석은 특별한 장식이 없이 모서리의 각을 살짝 줄임하고 있지만 측면의 판석은 외부 쪽으로 건물 지붕의 처마선처럼 얇게 가공하고 상부에 합각선을 모각했다.(도판 19, 20)



〈도판 19〉 청운교·백운교 홍예부



〈도판 20〉 홍예부 세부

이상으로 불국사의 주 출입문인 청운교·백운교의 세부 양식을 검토하였다. 청운교·백운교는 상·하 2단의 기단이 지표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계단과 그 뒤에 홍예를 결합하는 구조로 이루어졌으며 두 계단의 합이 34개로 불국토로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33개의 하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16)</sup> 또한 다리의 명칭 역시 청운교·백운교로 명명하고 있으며 하단을 청운교로 상단을 백운교를 설정하고 있다. 이 명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장을 바꾸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 IV. 불국사 청운교·백운교의 명칭

삼국 중 가장 늦게 불교를 공인한 신라지만 불교에 대한 열망과 신앙심은 다른 나라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폭발적이었다. 신라인은 자신의 영토가 부처가 상주하는 佛國土로 믿었으며, 진흥왕은 자신의 혈통이 석가족과 같은 크샤트리아종(刹利種)이라고 굳게 믿고 자신이 전륜성왕이라고 생각했다.<sup>17)</sup> 신라인의 불국토에 대한 열망은 이들이 건립한 사찰 건축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부처의 세계인 불국토를 가장 잘 표현한 곳은 불국사이다. 불국사에는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사자대좌, 코끼리대좌, 당간지주, 석등, 종루, 석가탑과 다보탑, 아미타불, 비로자나불 등의 많은 유물이 있다. 불국사에 있는 유물 대부분은 불교 경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리적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이며 이 중에서도 석가탑과 다보탑은 『묘법연화경』 건보탑품의 내용을 현상화한 것이다. 사자대좌와 코끼리대좌는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우 협시보살인 文殊菩薩과 普賢菩薩이 앉는 자리이다. 아미타불과 비로자나불은 『아미타경』과 『화엄경』의 주존불이다. 이처럼 불국사에 있는 유물 대부분은 신라인이 널리 믿었던 불교 경전과 관련이 깊으며, 신라인의 믿었던 경전에서 설파하는 불국토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불설아미타경』의 불국토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6) 염중섭, 2009, 「佛國寺의 伽藍配置 思想背景에 關한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3~64쪽.

17) 최완수, 2007, 『한국불상의 원류를 찾아서』2, 대원사, 278쪽.

“①이곳으로부터 서쪽으로 10만의 불국토를 ... (중략)... 또 사리불아, ②극락국토에는 일곱 겹으로 된 난간과 일곱 겹으로 된 그물과 일곱 겹의 줄지어선 가로수가 있는데, 모두 네 가지 보배로 둘러싸여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 국토를 극락이라고 하느니라.<sup>18)</sup> 사리불아, 극락국토에는 ③7보로 된 연못이 있으니, 8공덕수가 그 안에 가득 차 있느니라. 연못 바닥에는 금모래가 깔려 있고, 사방의 계단은 금·은·유리·파리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또 그 위에는 누각이 있는데, 역시 금·은·유리·파리·차거·붉은 구슬·마노로 장엄하게 꾸며져 있느니라. 연못 속에는 연꽃이 피어 있는데, ... (중략)... 저 불국토에는 항상 ④하늘의 음악 소리가 나고 땅은 황금으로 되어 있으며, 밤과 낮 여섯 번 하늘에서 만다라화 꽃비가 내리느니라. <sup>19)</sup>

『화엄경』의 불국토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마갈제국의 적멸도량에서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셨다.

⑤그 땅은 금강으로 되어 장엄과 청정함을 갖추었고 온갖 보배와 꽃들로 장식하였으며, 가장 묘한 보배 바퀴는 원만하고 청정하며 한량없는 묘한 빛깔로 갖가지로 장엄하여 마치 큰 바다와 같았다. ⑥보배로 된 당기와 번기와 일산들은 광명이 번쩍이고, 묘한 향과 화만은 그 주위를 둘러쌌다. 칠보로 된 그물로 그 위를 덮고 한량없는 보배를 비 오듯 내리어 변화가 자재하며 온갖 보배 나무는 꽃과 잎이 무성하고 빛났다. 부처님의 신력으로 도량은 넓고 깨끗하며, 광명이 두루 비취 모두가 기특하고 온갖 보배 무더기와 한량없는 선근으로 장엄한 것이었다. 보리수는 우뚝 높이 솟아 청정한 유리로 그 줄기가 되었고, 묘한 ⑦보배로 된 가지는 장엄이 청정하며, 보배로 된 잎은 길은 구름처럼 퍼졌고 가지각색의 아름다운 꽃들은 그 사이사이에 피어 있었다. ... (중략)... ⑧보배 꽃으로 장엄하였고, 찬란한 광명은 구름과 같아 무수한 보살들의 큰 바다 같은 모임을 두루 비추었다.<sup>20)</sup>

18) “從是西方過十萬億佛土 有世界名曰極樂 其土有佛 號阿彌陀 今現在說法 舍利弗 彼土何故名爲極樂 其國衆生無有衆苦 但受諸樂 故名極樂 又舍利弗 極樂國土 七重欄楯 七重羅網 七重行樹 皆是四寶周而圍繞 是故彼國名曰極樂.”(『佛說阿彌陀經』 1권(ABC, K0192 v11, 185a15-a22쪽)).

19) “又舍利弗 彼佛國土 常作天樂 黃金爲地 晝夜六時 天雨曼陀羅華 其國衆生 常以清旦 各以衣祴盛衆妙華 供養他方十萬億佛; 卽以食時 還到本國 飯食經行 舍利弗 極樂國土成就如是功德莊嚴.”(『佛說阿彌陀經』 1권(ABC, K0192 v11, 185b08-b13쪽)).

20) “一時 佛在摩竭提國寂滅道場始成正覺 其地金剛具足嚴淨 衆寶雜華以爲莊飾 上妙寶輪圓滿清淨 無量妙色種種莊嚴猶如大海 寶幢幡蓋光明照耀 妙香華鬘周而圍繞 七寶羅網彌覆其上 雨無盡寶顯現自在 諸雜寶樹華葉光茂 佛神力故 令此場地廣博嚴淨 光明普照 一切奇特妙寶積聚 無量善根莊嚴道場 其菩提樹高顯殊特 清淨瑠璃以爲其幹 妙寶枝條莊嚴清

『묘법연화경』의 불국토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때 부처님께서 백호의 한 광명을 놓으시니, 곧 ⑨동방 5백만억 나유타 향하의 모래같이 많은 국토에 있는 여러 부처님들을 볼 수 있거늘, 그 여러 국토는 땅이 파러로 되었고, 보배 나무와 보배옷으로 장엄되었으며, 한량없이 많은 천만억 보살이 그 가운데 충만하였고, 보배 장막이 둘러쳐 있었다. 보배 그물을 위에 덮었고, 그 국토의 부처님들은 크고 미묘한 음성으로 법을 설명하였으며, 또 한량없이 많은 천만억 보살이 국토마다 가득하여 증생을 위하여 설법하는 것도 보았으며, 남·서·북방과 4유·상하 어느 곳이나 백호의 광명이 비치는 곳은 모두 이와 같았다.<sup>21)</sup> ... (중략)... 또 ⑩이 사바세계의 땅이 유리로 되어 탄탄하고 평정하며, 8도를 엄부단금으로 경계하며, 보배 나무가 늘어서 있고, 많은 누각이 다 보배로 이루어지고<sup>22)</sup>

위의 경전에서 언급한 불국토는 ①, ⑧, ⑨처럼 현실 세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이곳은 넓은 물이나 바다가 흐르고 있다. 이 바다를 공덕수(功德水) 팔해(八海) 등으로 설명하고 ②는 불국의 외곽으로 일곱 겹으로 된 난간과 그물, 줄지어선 가로수가 있는데, 모두 네 가지 보배로 둘러싸여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처가 상주하고 있는 불국토의 외형적인 모습은 ⑩에서 땅이 유리로 되어 탄탄하고 평정하며, 8방을 엄부단금으로 경계하며, 보배 나무가 늘어서 있고, 많은 누각이 다 보배로 이루어 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불국토의 장엄은 ③, ④,

淨 寶葉垂布猶如重雲 雜色寶華間錯其間 如意摩尼以爲其果 樹光普照十方世界 種種現化施作佛事 不可盡極 普現大乘菩薩道教 佛神力故 常出一切衆妙之音 讚揚如來無量功德 不可思議師子之座 猶如大海 衆妙寶華而爲嚴飾 流光如雲 周徧普照無數菩薩大海之藏 大音遠震 不可思議 如來光明逾摩尼尊 彌覆其上 種種變化施作佛事 一切悉睹無所罣礙 於一念頃 一切現化充滿法界 如來妙藏無不徧至無量衆寶莊嚴寶臺。(『大方廣佛華嚴經』 1권(ABC, K0079 v8, 1a04-a23쪽)).

21) “爾時佛放白毫一光 卽見東方五百萬億那由他恒河沙等國土諸佛, 彼諸國土 皆以頗梨爲地 寶樹 寶衣以爲莊嚴 無數千萬億菩薩充滿其中 遍張寶幔 寶網羅上 彼國諸佛 以大妙音而說諸法 及見無量千萬億菩薩 遍滿諸國 爲衆說法 南西北方 四維上下 白毫相光所照之處 亦復如是。”(『妙法蓮華經』 4권(ABC, K0116 v9, 762c23-763a08쪽)).

22) “阿逸多 若善男子 善女人 聞我說壽命長遠 深信解 則爲見佛常在耆闍崛山 共大菩薩 諸聲聞衆圍繞說法 又見此娑婆世界 其地琉璃 坦然平正 閻浮檀金以界八道 寶樹行列 諸臺樓觀皆悉寶成 其菩薩衆咸處其中 若有能如是觀者 當知是爲深信解相 又復如來滅後 若聞是經而不毀背 起隨喜心 當知已爲深信解相 何況讀誦 受持之者 斯人則爲頂戴如來。”(『妙法蓮華經』 5권(ABC, K0116 v9, 778b19-c06쪽)).

⑤, ⑥, ⑦에서 당기와 번기 금·은·유리·파리·차거·붉은 구슬·마노의 7보, 연못 속에는 연꽃, 하늘의 음악 소리, 땅은 황금, 밤과 낮 여섯 번 하늘에서 만다라화 꽃비, 칠보로 된 그물, 짙은 구름, 가지각색의 아름다운 꽃들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경전의 이상적인 불국토의 모습은 불국사 경내뿐만 아니라 진입하는 주 진입로인 청운교·백운교에도 잘 표현되어 있다. 예를 들어 불국토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에서 멀리 떨어진 피안(彼岸)의 세계를 넘어가야 하는데 이때 청운교·백운교를 매개체로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는 불국토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이다.<sup>23)</sup> 또한 불국토의 외곽을 일곱 겹으로 된 난간과 그물이 감싸는 표현은 청운교·백운교의 난간과 이 난간을 연결하고 있는 돌난대의 모습이다. 더욱이 『묘법연화경』에서는 불국사 청운교·백운교의 계단을 상징하듯 “삼십삼천의 하늘을 지난 보배탑을 공양하고, 그밖에 하늘·용·야차·건달바·이수라·가루라·긴나라·마후라가 등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천만 억의 중생들은 온갖 꽃과 향과 영락과 번개와 기악들로 그 보배탑을 공양하며 공경하고 존중하며 찬탄하였다.”라고 하고 있다.<sup>24)</sup>

불교 경전에 입각한 불국토의 이상적인 모습이 불국사에 잘 표현되어 있고, 이 중에서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는 본전으로 진입하기 위한 이상적 진입로의 모습이 청운교·백운교를 통해서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청운교·백운교는 불교적 이상향을 현실 세계에 표현한 대표적인 작품이지만 다리의 명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sup>25)</sup>

불국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기록은 『삼국유사』의 “김대성이 창건한 불국사에는 구름다리(雲橋)와 석탑은 그 돌과 나무에 조각한 공력으로 말하자면, 경주의 여러 사찰 중에서 이보다 뛰어난 것은 없다고 할 것이다.”<sup>26)</sup> 불국사를 김대성이 창

23) 권중서, 2010, 『사찰의 문과 다리 깨달음으로 이르는 길』, 대한불교진흥원, 42쪽.

24) “三十三天雨天曼陀羅華 供養寶塔 餘諸天·龍·夜叉·乾闥婆·阿修羅·迦樓羅·緊那羅·摩睺羅伽·人非人等 千萬億衆 以一切華·香·瓔珞·幡蓋 作樂 供養寶塔 恭敬·尊重·讚歎.”(『妙法蓮華經』 4권(ABC,K 0116 v9, 762b06-b11쪽)).

25) 청운교·백운교의 명칭을 관련 경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순서를 하단이 백운교이고 상단이 청운교라고 설명하고 있다. 염중섭, 2008, 『佛國寺 靑雲橋·白雲橋의 순서 고찰』 『건축역사연구』 제17권 2호, 한국건축역사학회, 98쪽.

26) 『三國遺事』 권5, 孝善 9, “大城 孝 二世父母, 其佛國寺雲梯石塔彫鏤石木之功 東都諸刹未有加也.”

건했다는 내용과 이 속에는 구름다리와 석탑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 청운교·백운교 같은 계단을 뭐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삼국유사』에서는 운제로 표현하고, 황복사에서는 “의상이 황복사에 있을 때 무리들과 함께 탑을 돌았는데, 매번 허공을 밟고 올라갔으며 계단으로 오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탑에는 사다리가 설치되지 않았고 그 무리들도 층계에서 세자나 떨어져 허공을 밟고 돌았다.”<sup>27)</sup> 라는 기록에서 황복사 탑의 계단은 돌다리라는 뜻의 梯磴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후 통일신라시대 청운교·백운교 같은 석교에 대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 지금처럼 불국사의 청운교·백운교라는 명칭은 조선시대 불국사의 고급창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불국사 경내에는 升天橋 一區, 紫霞門 六間, 靑雲橋와 白雲橋<sup>28)</sup>와 함께 대부분 유물의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불국사의 청운교·백운교 이름은 이후 그대로 계승되어 식산선생이나 허백당, 율하 계오 스님 등의 조선시대 선비의 시문집에서 그대로 사용된다. 이들의 문집에서는 불국사가 토함산 자락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대략적인 모습과 청운교·백운교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또한, 『가산고』에는 김대성이 청운교·백운교라는 명칭과 함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창건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29)</sup> 한편 청운교·백운교처럼 두 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청운교의 경우 조선시대 경복궁의 다리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불국사의 청운교·백운교는 통일신라시대 창건 당시 정확한 명칭을 알 수 없고, 고려시대 일연이 찬한 『삼국유사』에 雲梯, 梯磴으로 불리고 조선시대 불국사 고급창기 이후 본격적으로 청운교·백운교라는 명칭이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구름을 모티브로 하는 명칭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등장하는 사실은 분명하다.

27) 『三國遺事』 권4, 義解 5, “義湘傳教 湘住皇福寺時與徒衆繞塔 每步虛而工 不以階升 故其塔不設梯磴 其徒離階三尺履空而旋.”

28) 『佛國寺古今創記』, “升天橋 一區 南行廊 十間 紫霞門 六間 靑雲橋 白雲橋 極樂殿 十二間 ….”(『佛國寺誌(外)』, 1983, 亞細亞文化社, 47쪽).

29) 『伽山藁』, “伏以一千年故都 流水烟雲之陳迹 八萬卷大藏 戒定慧解之現熏 自有歸投之心 可乏供養之具 是故古今爲一 宮室居多 佛國乃是東伽藍 往事如昨 極樂猶曰西天竺 後觀依今 度生之願以深 多人誦無量壽佛 奉母之心尤切尺牘書金大誠人 靑雲橋白雲橋.”

〈표 1〉 불국사 청운교·백운교 조선시대 기록

원전	내 용	명칭
태종실록의 청운교 <sup>30)</sup>	다시 行廊의 役事を 시작하였다. 경복궁의 남쪽부터 종묘 앞까지 좌우 행랑이 모두 8백 81간이고, 또 종묘의 南路에 層樓 5간을 세웠다. 또 靑雲橋의 西鍾樓 2층 5간을 巡禁司의 남쪽, 廣通橋의 북쪽에 옮긴다.	청운교
息山先生 別集 <sup>31)</sup> (1813년)	토함산은 함월산으로 이어지고 / 吐嶽連月峽 도량은 천년이나 열려 있네 / 道場千年闢 청운교와 백운교의 / 靑雲白雲橋 깊은 골짜기에는 쌍무지개 솟아나고 / 雙虹起邃壑 바람 타고 앉은 12누각은 / 駕噓十二樓 봉황의 날개를 다투어 잡는 듯하네 / 爭拏矯鳳翼	청운· 백운교
허백당시집 <sup>32)</sup> 제13권 / 시(詩)(1669년)	맑은 강에 비단 돛배 천천히 저어 가니 / 淸江錦纜徐牽去 무수한 미인들로 물가가 환하구나 / 無數紅粧耀洲渚 청운교와 백운교로 다리가 나뉘지니 / 靑雲白雲分作橋 어디에서 들려오나 하늘나라 음악 소리 / 下天籟鼓來何處 층층의 열두 난간 바람 속에 높이 솟고 / 層欄十二憑風高 춤추는 소매자락 허공에서 너풀너풀 / 翩翩舞袖空中舉	청운· 백운교
伽山藁 (1852년)	불국사 동쪽 가람에는 서축의 극락불이 천축을 바라보며 있고 또 한 무량수불이 있으며, 김대성이 부모를 위해 건립하였다. 청운교 백운교가 있다. / 佛國乃是東伽藍 往事如昨 極樂猶曰西天竺 後觀依今 度生之願以深 多人誦無量壽佛 奉母之心 尤切尺牘書金大誠人 靑雲橋白雲橋	청운교· 백운교

## V. 맺음말

신라 사찰의 진입방식 변화와 불국사 靑雲橋·白雲橋의 의미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먼저 신라 사찰의 입지를 평지, 구릉, 산지로 구분하여 각 입지에 따른 진입방식을 검토하였다. 분황사와 황룡사지 같은 평지사찰은 왕경의 도로망과 인접하여 창건되어 별도의 진입로가 없고, 삼국통일 이후 등장하기 시작하는 구릉이나 산지사찰의 경우 진입로가 만들어진다.

30) 『조선왕조실록』 25권, 태종 13년 2월 6일 을묘 2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復始行廊之役 自景福宮之南至宗廟前 左右行廊凡八百八十一間 又於宗廟南路 建層樓五間 又移靑雲橋西鍾樓二層五間於巡禁司之南.”

31) 『息山先生別集』 권4, 地行錄10 佛國寺.

32) 『虛白堂詩集』 권13, 佛國寺.

신라 사찰이 평지에서 구릉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모색되는 진입로는 크게 다리와 계단형식 두 가지이다. 다리형식의 진입로는 불국사 청운교·백운교가 최초의 사례로 알려져 있으나 이 글을 통해서 사천왕사지가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다리형식의 진입로는 사천왕사 이후 토함산 지역에 창건되는 崇福寺와 遠願寺 등으로 이어진다. 계단형식 진입로는 감은사가 최초의 사례이며, 이후 구릉과 산지에 입지하는 많은 사찰로 계승된다.

불국사 청운교·백운교는 신라 사찰의 입지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탄생한 계단과 다리형식의 진입로를 결합한 이상적인 건축물이다. 불국사 청운교·백운교는 2층 구조로 상단의 백운교가 14단 하단의 청운교가 18단 총 34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단의 청운교는 지면에서 높이 3.6m 넓이 5.14m의 규모이고, 이 기단과 지표면을 홍예와 앞쪽의 계단이 결합하여 연결하고 있다. 청운교 기단면은 남면과 동·서 측면을 각기둥과 면석, 감석, 자연석을 절묘하게 조합하고 있다. 백운교는 청운교와 대동소이하게 기단면을 구성하고 규모가 작아진다.

불국사 청운교·백운교는 독창적인 건축기법과 의장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독창적인 건축기법은 신라의 일반적인 사찰 기단이 지대석+면석+감석의 결합을 통해 구성하고 있는 반면 불국사 기단은 몸체의 3중 감석 구조로 인해 면석의 이탈방지 효과가 탁월하다. 특히, 모서리 부분의 '亞'자형 커튼 감석 구조는 신라의 여타의 건축물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독창적인 구조기법으로 주목된다. 불국사 청운교·백운교는 의장까지도 완벽하게 고려하여 조성하고 있다. 청운교와 백운교의 규모 차이, 정면 기둥의 배열에서 1단의 기둥 높이에 비해 2, 3단의 기둥을 낮게 조성하여 균형을 맞추고 있다. 청운교 기둥의 주경보다 백운교 기둥의 주경을 더 적게 조성하는 등 시각적 안정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처마끝의 표현, 기단 동·서면의 시선차단벽 부재의 차용, 서까래석과 눈썹지붕 석재 등은 목조건물의 건축적 요소를 완벽하게 도해하여 반영한 것이다.

신라인이 만든 불국사는 당시 신라인이 꿈꾸던 불국토를 가장 잘 표현한 사찰이며, 진입로인 청운교·백운교까지도 불교적 교리를 바탕으로 탄생시킨 조영물이다. 다만 그 명칭에 대해서는 통일신라시대 창건 당시 정확한 이름은 알 수 없고, 고려시대 일연이 찬한 『삼국유사』에는 雲梯, 梯磴으로 불리고 조선시대 불국사 고금창기 이후 본격적으로 청운교·백운교라는 명칭이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1. 원전 및 원문

- 「新羅東國吐含山華嚴宗佛國寺事蹟記」 「佛國寺古今創記」 「佛國寺无垢淨塔重修記」  
『三國遺事』  
『三國史記』  
『朝鮮王朝實錄』  
『華嚴經』  
『妙法蓮華經』  
『佛說無量壽經』  
『佛國寺誌』, 1984, 亞細亞文化史社.

### 2. 단행본 및 저서

- 慶州市, 1976, 『佛國寺復元工事報告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6, 『芬黃寺』.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四天王寺 I 金堂址 발굴조사보고서』.  
국립중앙박물관·대한불교조계종, 2009, 『불국사석가탑유물 02 중문서』.  
김동욱, 2002, 『한국건축의 역사』, 技文堂.  
문화재청·성보문화재연구원, 2010, 『한국의 사찰벽화 대구광역시·경상북도 1』.  
鄭寅國, 2006, 『韓國建築樣式論』, 一志社.  
최완수, 2007, 『한국불상의 원류를 찾아서』 2, 대원사.

### 3. 보고서 및 논문

- 강우방, 1997, 「佛國寺 建築의 佛敎的 象徴構造」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 18.  
김상협·조현정·김왕직·김호수·정성진·김덕문, 2013, 「조선후기 석빙고 홍예구조와 조성방법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9(11), 한국건축학회.  
노명호·이승재, 2009, 「釋迦塔에서 나온 重修文書의 判讀 및 譯註」 『重修文書』, 국립중앙박물관·대한불교조계종.  
李康根, 1997, 「佛國寺의 佛殿과 18世紀 後半의 再建築」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 18.  
오세덕, 2013, 「경주 보문동 사지에 관한 고찰」 『고문화』 81.

- 李順英, 2018, 「統一新羅 石塔의 造形과 特性 研究」, 東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염중섭, 2008, 「佛國寺 靑雲橋·白雲橋의 순서 고찰」 『건축역사연구』 제17권 2호, 한국건축역사학회.
- 염중섭, 2009, 「佛國寺의 伽藍配置 思想背景에 關한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경하, 2015, 「불국사에 석축에 나타나는 고대 석축의 구축법과 의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ABSTRACT

## Changes to Access Ways to Silla's Buddhist Temples and the Meanings of Cheongwoongyo and Baekwoongyo at Bulguk Buddhist Temple

Oh Se-deok

This study reached its conclusions in four aspects including the realization of an ideal access way, completion of function, structure, and design, perfect illustrations of Buddhist scriptures, and the biggest remaining single structure from Unified Silla.

In the aspect of realization of an ideal access way, they introduced a new access way in the forms of bridges and stairs to overcome height differences by the section in the process of Silla's Buddhist temples moving from plains to hills and mountains. The bridge form was considered as a high-end technique applied to access ways at Silla's Buddhist temples. The exquisite combination of an access way in the bridge form and another access way in the stair form was realized in Cheongwoongyo and Baekwoongyo at the Bulguk Buddhist Temple. They are the greatest access ways among Buddhist temples built in Silla.

Cheongwoongyo and Baekwoongyo boast completion of function, structure, and design. Their main function is to help visiting Buddhists to the Bulguk Buddhist Temple enter the zone of the main building. They have played their role fully until recently. There is an emphasis on the structural rigidity of Cheongwoongyo and Baekwoongyo since they are bigger and higher than the old post-lintel stylobates. Elements of wooden architecture were adapted in them such as the expression of Cheomagol at the connection of banister

stones and stairs in the southern, eastern, and western section of the bridges, the borrowing of gaze shield walls between three-row columns in the eastern and western parts, and the use of rafters at the top.

The people of Silla expressed their idea of an ideal Buddha land at the Bulguk Buddhist Temple. Cheongwoongyo and Baekwoongyo offer a great embodiment of such an ideal land in the scriptures. One, for instance, has to go over into the world of nirvana far from the real world in order to enter Buddha Land. Here, Cheongwoongyo and Baekwoongyo can serve as media for one's entry into Buddha Land where the Seokga and Dabo Pagodas are. The perimeter of Buddha Land is wrapped by the banisters in seven layers and nets, and it is expressed by the banisters of Cheongwoongyo and Baekwoongyo and the Dolnandae connecting the banisters.

Cheongwoongyo and Baekwoongyo are the biggest stone structures whose original forms are kept intact perfectly in the nation. Damage was found at several places of the bridges in photographs taken during the Japanese rule, but the basic form of Hongyegyo is kept intact. The original forms have been maintained almost perfectly since their construction.

Key Words : Bulguk Buddhist Temple, Cheongwoongyo and Baekwoongyo, Silla's Buddhist temple, access way, Buddhist temples on plains, hills, and in mountains

논문 투고일 : 2020. 7. 13. 심사 완료일 : 2020. 8. 3. 게재 확정일 : 2020. 8. 4.